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조영미
선문대학교 간호학과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and Physical Self-Concept on Self-Efficacy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Young-Mi Cho
Department of Nursing, Sunm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전라지역의 M대학교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t-test, ANOVA, Pearson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이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66, p<.001$; $r=.521, p<.001$). 회귀분석결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적지지($\beta=0.383, p<.001$), 신체적 자기개념($\beta=0.352, p<.001$), 전공만족($\beta=0.122, p=0.036$)임을 확인하였고 설명력은 44.7%였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높여주기 위해 자신의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긍정적인 지지체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또한, 학과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자기개념을 높여 줄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physical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as well as to explore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and physical self-concept on self-efficacy. Data were collected from nursing college students at M University in the Jeolla region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June to July 2023. Data analysis included t-tests, ANOVA,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reveal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physical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r=.566, p<.001$; $r=.521, p<.001$). Regression analysis identified factors influencing self-efficacy as social support ($\beta=0.383, p<.001$), physical self-concept ($\beta=0.352, p<.001$), and major satisfaction ($\beta=0.122, p=0.036$),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44.7%. Thus, to enhance the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it is essential to cultivate a positive perception of their major and develop and implement programs that establish positive support systems. Additionally, both departmental and institutional levels should offer mental and physical programs to boost physical self-concept among students.

Keywords : Social Support, Physical Self-Concept, Self-Efficacy,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Young-Mi Cho(Sunmoon Univ.)

email: choyoung23r@sunmoon.ac.kr

Received September 4, 2023

Revised October 16, 2023

Accepted December 8, 2023

Published December 31, 2023

1. 서론

간호학과는 학과의 특성 상 방대한 학업량과 교내실습, 교외실습, 시뮬레이션 실습, 그리고 많은 비교과 과목까지 수행 할 양이 많아 간호학과 학생들은 학업을 근본적으로 도전적이고 힘든 과정으로 인식한다[1-3].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간호학과 학생들은 중도 탈락을 경험하기도 하고 학과 부적응을 경험하기도 한다[4]. 또한 어려운 학업을 완료하고 사회에서 간호사로서 일함에 있어서도 간호사의 업무는 책임감이 크게 요구되므로, 간호학생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은 학생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전하고 맞서 해결책을 찾아내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개념이 자기효능감이다. 자기효능감은 과업 성취를 위해 필요한 행동 계획, 실행하는 능력과 관련한 신념으로 개인의 행동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5].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에게 대학생활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6], 학생들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7]. 또한 많은 실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8], 간호대학생의 소진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9].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현실충격을 더 낮게 경험하므로[10] 간호대학생에게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어떠한 요인들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여 그 정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란 개인이 존경받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신념의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개인이 형성한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의미한다[11]. 사회적지지를 충분히 받은 학생은 회복탄력성이 높고[12], 스트레스 상황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게 되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으며, 간호대학생들이 소진의 감소에도 영향을 준다[9]. 또한, 대학생에게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대처하여 대학생활의 적응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13] 간호대학생에게 사회적지지를 높여 주어 야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더불어,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가 간호사의 직무만족[14], 간호업무성취[15], 회복탄력성에도[16]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것은 학생 이후의 삶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에게 사회

적지지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신체적 자기개념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스스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총체적인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17]. 신체적 자기개념은 운동선수들과 관련되어 자신의 건강상태, 외모, 신체적인 능력의 정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대개 신체적 자기개념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높고 스트레스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다[18]. 또한, 신체적 자기개념은 자신의 건강상태나, 성적 매력뿐만 아니라, 신체적 재능이나 외모까지 나타내어 신체지각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행복감까지 향상시켜준다고 하였다[19]. 신체적 자기개념은 간호대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자아탄력성에도 상관이 있고[20], 무용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는 신체적 자기개념이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졌다[21,22]. 이처럼 신체적 자기개념은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간호학에서 신체적 자기개념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더불어 간호대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의 정도, 다른 요인과의 상관이나 영향을 조사한 연구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더하여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전라도 지역 M대학교 간호대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글 설문지를 통해 학생대표를 통해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지에는 연구의 목적과 동의서 작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설문은 필요한 개인정보와 자료에 대한 비밀이 유지됨을 밝혔고 연구이외의 목적 외에는 이용되지 않으며 연구의 종료와 함께 자료가 폐기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설문이 배부되었고 자율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어떠한 설득이나 권유는 없었다. 자발적 동의를 하고 설문작성 후 제출 하여 온라인으로 집계된 190명의 자료만 연구에 사용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중간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그리고 예측변수 13개를 지정하였고 최소 표본수는 189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는 190명으로 조건에 충족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사회적지지

박지원[23]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김연수[24]가 수정, 보완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등의 정서적지지(7문항),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적지지(6문항), 필요한 돈, 물건 등을 제공해 주는 물질적지지(6문항), 칭찬이나 인정 등 자신을 평가해 주는 평가적지지(6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의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연구대상이 평소에 주위사람(가족, 친구, 교수 및 선후배 등)에게 느끼는 생각에 관한 문항으로 자신의 주위 사람들에 대한 느낌의 정도를 해석하였다. 박지원[23]에 의해 개발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 .94였으며, 김연수[24]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α = .9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 .979로 나타났다.

2.3.2 신체적 자기개념

본 연구에서 신체적자기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 도구는 Marsh et al.[25]의 신체적 자기개념 질문지(Physical Self-Description questionnaire: PSDQ)를 김병준[26]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을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후 사용하였다. 질문지 구성은 근력, 지구력, 신체전반, 신체활동, 외모, 유연성, 체지방, 자기존중감, 스포츠유능감, 건강에 관한 10개의 하위영역 총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도구 개발 당시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 Cronbach's α = .75~.91였고, 본 연구에서 하위영역의 신뢰도 Cronbach's α = .86~.98,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 .916이었다.

2.3.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Sherer et al.[27]이 개발한 척도를 김아영[28]이 수정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을 묻는 자신감(7문항),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조절적 기제를 잘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 정도를 묻는 자기조절 효능감(12문항), 목표설정 시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과제의 목표를 선호하는 정도를 묻는 과제난이도 선호(5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의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아영[28]에 의해 개발된 측정도구의 3개의 하위요인 신뢰도 Cronbach's α 는 Cronbach's α = .69 ~ .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 .862로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이 자기효능감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그리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이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t-Test와 ANOVA,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이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3.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39명(20.5%)이었고 여자는 그 보다 많은 151명(79.5%)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과 2학년이 각각 42명(22.1%)이었고, 3학년이 44명(23.2%), 4학년은 62명(32.6%)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5.39±6.1세였고 연령대별로는 20-25세가 132명(69.5%)으로 가장 많았다. 26-30세는 32명(16.8%), 31세 이상의 대상자는 26명(13.7%)이었다. 거주 방식은 가족과 살고 있는 대상자가 125명(65.8%)으로 가장 많았고, 자취 52명(27.4%),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 대

사는 13명(6.8%)이었다. 형제 수는 1명이 94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2명 54명(28.4%), 3명 16명(8.4%), 외동 15명(7.9%), 4명 이상은 11명(5.8%)으로 가장 적었다. 동아리 활동의 경우 등록조차 하지 않은 대상자가 144명(75.8%)로 가장 많았고, 등록만 하고 활동은 하지 않은 경우가 22명(11.6%), 활발한 활동을 하는 대상자는 24명(12.6%)으로 나타났다. 관계에서 교우관계는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46명(76.8%)로 많았고 보통은 44명(23.2%)으로 나타났다. 교수와의 관계는 보통이 80명(42.1%), 좋은 편이 110명(57.9%)이었고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64명(86.3%),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26명(13.7%)이었다(Table 1).

Table 1.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Physical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n=190)

| | | N(%) | Social Support | | | | Physical Self-Concept | | | | Self-efficacy | | | |
|--------------------------|-------------------------|-----------|----------------|------|--------|-------|-----------------------|------|--------|-------|---------------|------|--------|-------|
| | | | M | SD | F | p | M | SD | F | p | M | SD | F | p |
| Gender | male | 39(20.5) | 3.61 | 0.66 | 6.696 | 0.01 | 3.10 | 0.57 | 0.829 | 0.364 | 3.43 | 0.43 | 0.905 | 0.343 |
| | female | 151(79.5) | 3.91 | 0.64 | | | 3.02 | 0.48 | | | 3.35 | 0.44 | | |
| Grade | 1st | 42(22.1) | 3.99 | 0.62 | 0.998 | 0.395 | 3.00 | 0.51 | 3.99 | 0.009 | 3.33 | 0.50 | 1.073 | 0.362 |
| | 2nd | 42(22.1) | 3.81 | 0.79 | | | 3.17 | 0.47 | | | 3.40 | 0.47 | | |
| | 3rd | 44(23.2) | 3.84 | 0.58 | | | 3.16 | 0.46 | | | 3.45 | 0.44 | | |
| | 4th | 62(32.6) | 3.77 | 0.63 | | | 2.88 | 0.51 | | | 3.31 | 0.36 | | |
| Age | 20-25 | 132(69.5) | 3.84 | 0.66 | 0.034 | 0.967 | 3.10 | 0.50 | 4.655 | 0.011 | 3.33 | 0.45 | 1.883 | 0.155 |
| | 25.39±6 | 26-30 | 32(16.8) | 3.85 | 0.59 | | | 2.98 | 0.46 | a>c | 3.40 | 0.40 | | |
| | | over 31 | 26(13.7) | 3.87 | 0.70 | | | 2.78 | 0.51 | | 3.50 | 0.39 | | |
| Indwelling | with family | 125(65.8) | 3.91 | 0.69 | 1.596 | 0.206 | 3.09 | 0.53 | 1.955 | 0.144 | 3.41 | 0.45 | 2.204 | 0.113 |
| | dormitory | 13(6.8) | 3.76 | 0.50 | | | 2.94 | 0.43 | | | 3.30 | 0.54 | | |
| | by own | 52(27.4) | 3.72 | 0.58 | | | 2.93 | 0.45 | | | 3.27 | 0.37 | | |
| Siblings | only | 15(7.9) | 3.75 | 0.56 | 0.327 | 0.86 | 3.00 | 0.44 | 0.533 | 0.711 | 3.27 | 0.37 | 0.443 | 0.777 |
| | 1 | 94(49.5) | 3.86 | 0.69 | | | 3.02 | 0.50 | | | 3.38 | 0.41 | | |
| | 2 | 54(28.4) | 3.86 | 0.63 | | | 3.07 | 0.49 | | | 3.39 | 0.48 | | |
| | 3 | 16(8.4) | 3.72 | 0.59 | | | 2.94 | 0.42 | | | 3.27 | 0.44 | | |
| | 4 more | 11(5.8) | 3.95 | 0.75 | | | 3.19 | 0.79 | | | 3.38 | 0.60 | | |
| Major Satisfaction | so-so | 48(25.3) | 3.56 | 0.61 | 13.046 | <.001 | 2.90 | 0.47 | 4.883 | 0.028 | 3.14 | 0.37 | 18.462 | <.001 |
| | good | 142(74.7) | 3.94 | 0.64 | | | 3.08 | 0.51 | | | 3.44 | 0.44 | | |
| Circle Activities | non-active ^a | 144(75.8) | 3.84 | 0.63 | 2.308 | 0.102 | 2.99 | 0.51 | 2.676 | 0.071 | 3.36 | 0.40 | 2.644 | 0.074 |
| | middle ^b | 22(11.6) | 3.63 | 0.73 | a<c | | 3.11 | 0.44 | | | 3.24 | 0.45 | a<c | |
| | active ^c | 24(12.6) | 4.05 | 0.71 | | | 3.23 | 0.45 | | | 3.53 | 0.59 | | |
| Relation with friends | so-so | 44(23.2) | 3.50 | 0.59 | 16.911 | <.001 | 2.88 | 0.48 | 5.811 | 0.017 | 3.15 | 0.36 | 14.618 | <.001 |
| | good | 146(76.8) | 3.95 | 0.64 | | | 3.08 | 0.50 | | | 3.43 | 0.44 | | |
| Relation with professors | so-so | 80(42.1) | 3.57 | 0.55 | 26.907 | <.001 | 2.90 | 0.47 | 10.338 | 0.002 | 3.21 | 0.38 | 20.637 | <.001 |
| | good | 110(57.9) | 4.04 | 0.66 | | | 3.13 | 0.50 | | | 3.48 | 0.44 | | |
| Relation with parents | so-so | 26(13.7) | 3.45 | 0.55 | 11.591 | 0.001 | 2.88 | 0.47 | 2.837 | 0.094 | 3.13 | 0.36 | 9.279 | 0.003 |
| | good | 164(86.3) | 3.91 | 0.65 | | | 3.06 | 0.50 | | | 3.40 | 0.44 | | |

※ sheffe test

3.2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의 정도

대상자의 사회적지지는 5점 만점에 3.84 ± 0.65 점 있고, 신체적 자기개념은 5점 만점에 3.04 ± 0.50 점이었다.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서 3.37 ± 0.44 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Levels of Social Support, Physical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n=190)

| | M±SD | Ranges |
|-----------------------|-----------|--------|
| Social Support | 3.84±0.65 | 1-5 |
| Physical Self-Concept | 3.04±0.50 | 1-5 |
| Self-efficacy | 3.37±0.44 | 1-5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 자기효능감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신체적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 정도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사회적지지는 성별($t=6.696, p=.01$), 전공만족($t=13.046, p<.001$), 친구관계($F=8.416, p<.001$), 교수와의 관계($t=26.907, p<.001$), 부모와의 관계에서($t=11.591, p=.001$)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체적 자기개념은 학년($F=3.99, p=.009$), 나이($F=4.655, p=.011$), 전공만족($t=4.883, p=.028$), 교수와의 관계에서($t=10.338, p=.002$)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t=18.462, p<.001$), 친구관계($F=8.332, p<.001$), 교수와의 관계($t=20.637, p<.001$), 부모와의 관계에서($t=9.279, p=.003$)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3.4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과 양의 상관이 있었고($r=.566, p<.001$), 신체적 자기개념과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521, p<.001$)(Table 3).

Table 3. Correlation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 (n=190)

| | Social Support | Physical Self-Concept | Self-efficacy |
|-----------------------|----------------|-----------------------|---------------|
| | r(p) | r(p) | r(p) |
| Social Support | 1 | | |
| Physical Self-Concept | .342** (<.001) | 1 | |
| Self-efficacy | .566** (<.001) | .521** (<.001) | 1 |

3.5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유의 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전공만족, 친구관계, 교수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를 더미처리하고 사회적지지와 신체적 자기개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변수들 간의 자기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을 확인하였고 그 값이 2.013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차한계는 0.622-0.868로 나타나 0.1이상으로 나타났다,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152-1.607로 나타나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력을

Table 4. Multiple Regression on Self-efficacy

| | B | SE | β | t | p | F | p | R2 | Adj.R2 |
|--------------------------|-------|-------|---------|-------|-------|--------|-------|-------|--------|
| (constant) | 1.279 | 0.181 | | 7.069 | <.001 | | | | |
| Social Support | 0.257 | 0.041 | 0.383 | 6.202 | <.001 | | | | |
| Physical Self-Concept | 0.307 | 0.051 | 0.352 | 6.053 | <.001 | | | | |
| Major Satisfaction | 0.123 | 0.058 | 0.122 | 2.108 | 0.036 | 26.485 | <.001 | 0.465 | 0.447 |
| Relation with friends | 0.02 | 0.071 | 0.019 | 0.276 | 0.783 | | | | |
| Relation with professors | 0.046 | 0.058 | 0.052 | 0.804 | 0.422 | | | | |
| Relation with parents | 0.04 | 0.079 | 0.031 | 0.506 | 0.614 | | | | |

* Reference Group: Major Satisfaction(so-so), Relation with friends(so-so), Relation with professors(so-so), Relation with parents(so-so)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서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전공만족과 친구, 교수, 부모와의 관계 4개의 요인과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을 독립변수로 하여 Enter의 방식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명력은 44.7%였다(Adj. $R^2 = 0.447$, $F = 26.485$, $p < .001$). 회귀분석 결과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적지지($\beta = 0.383$, $p < .001$), 신체적 자기개념($\beta = 0.352$, $p < .001$), 전공만족($\beta = 0.122$, $p = 0.036$)으로 나타났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과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는 5점 만점에 3.84 ± 0.65 점으로 확인되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 $3.97 \pm .49$ 점[10], 4.13 ± 0.54 점[12], $3.59 \pm .48$ 점[13], 4.02 ± 0.4 점[29], $3.80 \pm .68$ [30]점으로 나타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성별, 전공만족의 정도, 친구, 교수, 부모와의 관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많은 연구에서 역시 사회적 지지가 교수관계, 교수, 부모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았다[29-31]. 이는 사회적지지는 개인이 형성한 대인관계로부터 얻는 모든 종류의 긍정적인 자원임을 감안할 때[11] 주변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때 사회적지지를 받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에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관계를 적절하고 원만하게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9, 10, 29-31]. 이는 전공에 대한 만족이 학교생활의 전반에 거친 만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공만족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학교생활에서의 만족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공만족을 높여 학생 스스로가 사회적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간호학과의 경우 학과에 대한 높은 자긍심과 자부심을 반영한 것으로 자신의 분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본인을 둘러

싸고 있는 환경에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주변인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에게 자신의 학과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고, 전공의 특성과 장점을 계속적으로 학생의 특성에 맞추어 알려주어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올려 줄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지지의 정도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은 5점 만점에 3.04 ± 0.50 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3.37 \pm .52$ 점[19], 3.08 ± 0.49 점[20]으로 나타났고, 무용전공 대학생의 경우 3.09 ± 0.789 점[21]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정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신체적 자기개념은 학년, 나이, 전공만족, 친구관계와 교수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20] 신체적 자기개념은 나이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어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는 나이가 더 어리고, 학년이 낮을수록 신체적 자기개념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나이나 학년이 더 들어갈수록 신체적으로 덜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신체적인 자신감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행연구에서[19] 신체적 자기개념은 전공만족과 친구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하였다. 간호학과는 신체적 사용하는 전공은 아니나, 전공만족이 높은 학생이 자신을 매력 있고 건강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신체적 자기개념의 정도를 높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개인의 신체적 자기개념은 친밀한 주위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높아 질 수 있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나이나 학년과 같은 교정가능하지 않은 항목을 강조하기보다는 전공만족을 높이고 사회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그 방안을 제시하여 신체적 자기개념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37 ± 0.44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3.81 ± 0.60 점[8], 3.17 ± 0.56 점[9], $3.37 \pm .38$ 점[10], 3.36 ± 0.43 점[30], 3.43 ± 0.62 점[32]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30] 역시 전공만족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의 결과와 같았으며,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전공만족에 관심을 기울릴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교우, 교수, 부모와의 관계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30] 역시 관계가 자기효능감에서 차이를 보여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주변의 관심과 지지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에게 주변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 신체적 자기개념, 그리고 전공만족으로 밝혀졌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의 주변을 살펴보고 주변에서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지지체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반증한다. 학생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지지체계를 파악하고 긍정적인 지지를 해주는 집단에 속하게 장려하고, 자신은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자기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강조하여 꾸준한 운동을 통한 신체적인 자기개념을 정도를 높여 줄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의 개인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학과차원 그리고 학교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자기개념을 높여 줄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도전적인 환경에서 성공을 학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계속해서 자신의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자신의 전공과 학과에 대한 애착을 심어줄 수 있는 비교과적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신체적 자기개념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규명하였고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도 제한점은 있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로 대상자를 편의 표집으로 조사하였고, 서술적 조사연구인 관계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표본 지역 및 학교를 확대하여 폭넓은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G. J. Park, Y. S. Bea, K. H. Son, "A Convergence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8, No.6, pp.65-73, 2017.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7.8.6.065>

[2] B. Y. Park, O, S. Shim, "Predictors of Quality of Life in Nursing Students and General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11, pp.811-830, 2016.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6.16.11.811>

[3] Y. M. Cho, "The Influence of Empathy and Leadership on Happines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1, No.10, pp.622-629, 2021.

DOI: <https://doi.org/10.5392/JKCA.2021.21.10.622>

[4] J. Choi, Y. M. Park, Y. O. Ha, Y. R. Kweon, J. H. Song, M. K. Kim, D. Y. Kim,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Intention to Drop out",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19, No.1, pp.117-127, 20021.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0516>

[5] A. Bandur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Engle Wood Cliffs Prentice Hall. In *Abstract International*, 56(4), 123-129.

[6] M. Y. Kim, J. S. Jung, C. E. Yang, "Influence of Academic Stress, Career Identity and Self Efficacy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6, pp.1267-1284, 2020.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6.1267>

[7] E. K. Byun, M. Y. Kim, "Effects of Academic Stress, Self-Efficac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n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College Student",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8, No.1, pp.167-174, 2022.

DOI: <https://doi.org/10.17703/JCCT.2022.8.1.167>

[8] Y. S. Kim, H. H. Kim, J. E. Kim,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efficacy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2, No.2, pp.171-184, 2021.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2.2.13>

[9] H. J. Kim,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f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on Burnout",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4, No.8, pp.315-322,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19.17.1.249>

[10] D. Y. Park, "The Effects of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y on Reality Shock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0, No.4, pp.648-657, 2020.

DOI: <https://doi.org/10.5392/JKCA.2020.20.04.648>

[11] S. Cohen and H. M. Hoberman,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13, No.2, pp.99-125, 1983.

- [12] N. H. Kim, S. Y. Park,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Resilience of Student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3, pp.194-202,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3.194>
- [13] S. S. Baek, H. Y. Cho, "Influence of empathy, anxiety, and social support 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9, No.5, pp.2841-2852, 2017.
DOI: <https://doi.org/10.37727/jkdas.2017.19.5.2841>
- [14] I. J. Jung, M. K. Park,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the Job Satisfaction of Nurses in General Hospitals: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9, No.4, pp.333-341, 2020.
DOI: <https://doi.org/10.5807/kjohn.2020.29.4.333>
- [15] E. B. Choi, K. H. Yoo,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on nursing work performance among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7, No.3, pp.333-341, 2021.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 [16] J. S. Song, S. Y. Huh,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burnout: Focusing on nurses' experienc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8, No.4, pp.544-570, 2018.
DOI: <http://dx.doi.org/10.15709/hswr.2018.38.4.544>
- [17] H. W. Marsh (1998). Age and gender effects in physical self-concepts for adolescent elite athletes and nonathletic: A multicohort-multioccasion design.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20(-), 237-259.
- [18] S. H. Kim, J. S. Kim, J. H. Chu, "The Effect of Physical Self Concept, Perceived Freedo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Snowboard Community Member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55, No.1, pp.443-453, 2014.
UCI : G704-000763.2014..55.044
- [19] K. S. Kim, "Effect of Physical Self-Conception on Psychological Happines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11, pp.495-505, 2017.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11.17>
- [20] Y. M. Cho,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Safety and Physical Self-Concept on Ego-Resilienc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20, No.5, pp.877-884, 2022.
DOI: <https://doi.org/10.14400/JDC.2022.20.5.877>
- [21] Y. I. Kwon, S. J. Ch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hysical Self-Concept of the Students Majoring in Dance and the Self-Resilience and Dance Ability Achievement", *The Journal of Korean Dance*, Vol.34, No.1, pp.1-32, 2016.
DOI: <http://dx.doi.org/10.15726/jkd.2016.34.1.001>
- [22] J. M. Lee,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physique anxiety, physical self-concept, self-efficacy and subjective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dance",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27, No.4, pp.725-740, 2018.
DOI: <https://doi.org/10.35159/kiss.2018.08.27.4.725>
- [23] Park, J. W.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985.
- [24] Y. S. Kim,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mong adults with mental disorders, Master's thesis, E-hw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1995.
- [25] H. W. Marsh, G. Richards, S. Johnson, L. Roche, P. Tremayne, Physical Self-Description Questionnaire: Psychometric properties and a multitrait-multimethod analysis of relations to existing instruments,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Vol.16, No.-, pp.270-305, 1994.
- [26] B. J.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hysical Self - Description Questionnaire (PSDQ),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Vol.12, No.2, pp.69-90, 2001.
URL: <http://www.kssp.or.kr>
- [27] M. Sherer, J. E. Maddux, B. Mercandante, S. Prentice-Dunn, B. Jacobs, R. W. Rogers,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51, No.-, pp.663-671, 1982.
- [28] A. Y. Kim, "A study on the academic failure-tolerance and its correlat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11, No.2, pp.1-19, 1997.
UCI: I410-ECN-0102-2009-370-004988184
- [29] Y. J. Oh, E. S. Lee, M. S. Park, E. M. Lee, "The Effect of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Self-leadership on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3, No.2, pp.787-797, 2021.
DOI: <https://doi.org/10.37727/jkdas.2021.23.2.787>
- [30] Y. M. Cho,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Safety on Self-Efficacy in Seni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2, No.12, pp.603-611, 2022.
DOI: <https://doi.org/10.5392/JKCA.2022.22.12.603>
- [31] M. 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Department Satisfaction, Self-esteem, and Ego-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9, No.4, pp.1605-1620, 2018.
DOI: <http://dx.doi.org/10.22143/HSS21.9.4.11>
- [32] H. J. Ha, E. A. Kim, H. N. Kim, "A Convergence Study about the Influence of Body Image, and Self-Efficacy on Health Promotion Lifestyl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2, No.3, pp.361-369, 2021.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1.12.3.361>

조 영 미(Young-Mi Cho)

[정회원]



- 2002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12월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Nursing Science (Master's of Nursing Science)
- 2019년 8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1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질적연구, 건강정보이해능력, 한방간호, 간호교육